

여야, 총선 대진표 속속 완성... 당 주류 대거 본선 안착

국힘 200곳·민주 170곳 후보 확정...막바지 공천작업 속도

여야의 4·10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속칭 '당 권력 주류'의 본선행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3일 여야에 따르면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약 200곳, 더불어민주당은 약 170곳의 후보를 확정하며 본선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미뤄졌던 일부 지역구 공천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야 공천 경쟁은 막바지로 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친윤(친윤석열)계,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대부분이 공천장을 따내면서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물갈이 공천'은 사실상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8부 능선에 다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는 친윤계 의원 대다수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실세'로 불렸던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 외에는 눈에 띄는 친윤 탈락자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장 의원은 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일각에서는 장 의원 불출마 하나로 '친윤 희생론'을 종결지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원조' 친윤 그룹으로 불린 권성동·윤환홍 의원은 경선 없이 그대로 본선에 직행했다. 권 의원은 18대 때부터 내리 4선을 하며 기반을 다져온 강릉에서, 윤 의원은 '땃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창원마산회원에서 단수 공천장을 받았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재선 이철규 의원 역시 경쟁 후보의 경선 포기로 강연 통해 태백·삼척·정선에 단수 공천됐다.

대선 전 윤 대통령을 '고향 친구'로 불렀던 5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친윤계 초선인 강민국(경남 진주), 박수영(부산 남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도 단수공천 명단에 올랐다.

윤산 출신 인사 중에선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비교적 양지로 평가받는 경기 용인갑에서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았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인사 검증팀을 이끌었던 주진우 전 법무비서관은 '땃밭' 해운대에 단수공천됐다.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장성민(안산상록갑) 전 미래전략기획관도 본선에 직행했다. 아울러 김은혜(성남 분당을) 전 홍보수석은 김민수 당 대변인을, '윤석열 캠프' 청년 특보였던 장예찬(부산 수영) 전 최고위원은 현역 전봉민 의원을 각각 경선에서 꺾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본선 직행열차에 올라탔다.

특히 지도부에 속한 친명 핵심 인사들은 사실상 모두 살아남았다. 실제로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박찬대(재선·인천 연수갑), 장경태(초선·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모두 단수 공천됐다.

이들은 2022년 8·28 전당대회 당시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대표를 적극 옹호하며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역시 친명계인 조정식(5선·경기 시흥을) 사무총장과 김병기(재선·서울 동작갑) 수석사무총장, 김윤덕(재선·전북 전주갑) 조직사무부총장도 나란히 단수 공천장을 꿰찼다.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재선·전북 익산을) 의원과 수석대변인 권철승(재선·경기 화성병) 의원, 대변인 강선우(초선·서울 강서갑) 의원도 단수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과 권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 친문(친문재인) 혹은 비명계 인사로 분류됐지만, '이재명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계파색이 엷어졌다. 평가가 많다.

단수공천된 이개호(3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과 정태호(초선·서울관악을) 민주연구원장도 마찬가지로.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그간 대표적 친명계로 불린 의원들 절대다수가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됐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4선·경기 양주) 의원과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홍근(3선·서울 중랑을) 의원이 가뭄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5선·경기 오산) 의원과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는 '다선 물갈이론'을 앞세워 구색을 갖춘 것이라 평가도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대표, 더불어민주당 연합 운영덕·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신당 지지율 1%...이준석 3%

한국갤럽 조사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 지지도가 2주째 1%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다만 총선 지지 의향 여부에서는 14%의 지지율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2월 5주 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새로운미래의 지지도는 1%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 더불어민주당은 2%p 하락한 33%로 조사됐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 그 외 정당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였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 44%(지지 의향 없음 51%), 민주당 41%(지지 의향 없음 54%), 개혁

신당 14%(지지 의향 없음 77%), 새로운미래 14%(지지 의향 없음 78%)로 조사됐다.

4·10총선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의견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8%,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세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제3세대 승리를 희망한 응답자 중 40%는 개혁신당, 31%는 더불어민주당, 28%는 새로운미래, 23%는 국민의힘 지지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와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인천계양을, 이재명 vs 원희룡 성사

민주 공관위 10차 심사...경기 시흥에 조정식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인천계양을, 조정식 사무총장을 경기 시흥을 지역구에 각각 단수 공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의 '명룡 대전' 대전이 확정됐다.

이번 심사는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수 공천 지역은 4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 서울 노원병이 지역구였던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 단수 공천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노원구의 경우 갑·을·병에서 갑·을로 변경됐다.

서울 서초갑은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노원갑은 2인 경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각각 노원갑과 노원을이 지역구인 고용진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맞붙는다.

4석에서 3석으로 1석이 줄어드는 경기도 부천은 모두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 부천갑은 김경협(부천갑) 의원과 서영석(부천정) 의원,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이 3자 경선을 벌인다.

부천을에선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부천병은 김상희 의원과 이진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양자 경선이 치러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금태섭 "친문계, 공천 불공정 주장 황당"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일 '공천 학살'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친문계를 향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똑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금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공천 파동을 보는 심경'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천 탈락의 재고를 요청하는 임종석에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있어야 한다'였다"며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임종석보다 나 이도 많고 이미 재선을 했던 전현희 전 의원을 공천하는 근거로 그 말이 맞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반대 주장의 근거로 '명문정당'을 내세우며 자기들에게도 공천을 나눠 달라고 말하는 친문들의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친문이 권력을 잡고 있던 4년 전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대표가 아예 경선과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이후에 또 다른 권력자가 민주당 내에 나타나면 그 또한 친문, 친명의 뒤를 이어 공천을 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